

학술논문

정일권·김영석 (2006). 온라인 미디어에서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0권 4호, 653-672.

요약

이 논문은 온라인 미디어의 댓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제 3자 효과 가설을 이론적 틀로 삼아 검증하였다. 미디어를 제공하는 “쓰는 자”의 입장이 아닌 미디어를 받아들이는 “읽는 자”의 수용적인 미디어 효과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댓글 읽기가 개인의 의견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자신보다는 타인에게 더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은 악성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와 긍정적으로 상관되었고, 댓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의 댓글 폐지론과 부정적으로 상관되었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가 지닌 함의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가설

연구가설 1 : 댓글이 전달하는 쟁점에 관련된 정보가 사실로 믿어질수록 댓글 읽기가 개인 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2 : 댓글이 전달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실제 여론동향과 일치한다고 믿어질수록 댓글 읽기가 개인의견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것이다.

연구가설 3 : 수용자들은 나의 의견에 댓글 읽기가 미치는 영향력보다는 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지각할 것이다.

연구가설 4 : 개인의견 형성에 있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악성 댓글 작성자에 대한 법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연구가설 5 : 개인의견 형성에 있어 댓글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지각할수록 댓글 폐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연구결과

연구가설 1에 대한 결과 : 응답자들은 댓글 읽기가 어느 정도 쟁점에 대한 자기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댓글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태도는 댓글 읽기가 개인의견에 미치는 효과 지각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었다. (연구가설 1 지지됨.)

연구가설 2에 대한 결과 : 댓글 의견과 실제 여론과의 일치성에 대한 태도 역시 댓글 읽기가 개인의견에 미치는 효과 지각과 긍정적으로 상관되었다. 또한 ‘나이가 어릴수록’ 댓글 읽기가 자기 의견에 영향이 크다고 대답하였다. (연구가설 2 지지됨.)

연구가설 3에 대한 결과 : 자신이 댓글을 진실이라고 믿는 것보다 남들이 더 댓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댓글의 진실성에 대해서 제 3자 효과 지각이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쟁점에 대한 나의 의견보다는 남들의 의견이 댓글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연구가설 3 지지됨.)

연구가설 4에 대한 결과 : 댓글 읽기의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이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제재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가설 4 지지됨.)

연구가설 5에 대한 결과 : 댓글 읽기의 지각된 미디어 영향력과 댓글 폐지론에 대한 태도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지지되지 않았다. (연구가설 5 기각됨.)

채택한 이론·현상과의 연결

인터넷에서 대중들이 가장 쉽게 참여하고 수용할 수 있는 미디어의 한 종류인 '댓글'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본 연구논문이다. 댓글을 읽는 것 자체로 자신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 응답자가 많았다.(연구가설 1) 이는 연구가설 2로 이어져 댓글이 실제 여론과의 일치할수록 개인의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였다. '수면자 효과' 이론에서 설명하는 최초 근원이 아닌 정보만 남아 대다수의 여론으로 받아들여질수록 자기 의견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신은 다른 사람의 댓글에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댓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제 3자 효과 이론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댓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바, 악성 댓글이나 루머 역시 수용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댓글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제재를 찬성하는 것은 댓글이 미치는 효과를 지지한다.

연구결과들이 보여주는 것들을 통해 개인의견 형성에 '댓글'이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론형성에도 '댓글'의 영향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